

Build / Borrow / Buy / Bot 체크리스트

『일은 누가 하는가』 독자 자료 05

Capability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최종 결정하기 전,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세요. 체크가 많이 된 항목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.

Build (내부 육성)

- ☐ 이 역량은 향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필요하다
- ☐ 육성에 투입할 시간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
- ☐ 이 역량을 가르칠 내부 인력 또는 체계가 있다
- ☐ 조직 고유의 맥락(제품, 고객, 프로세스) 이해가 중요한 역량이다

Borrow (외부 전문가·파트너)

- ☐ 필요한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(프로젝트성)
- ☐ 내부에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
- ☐ 결과물 인수인계·지식 이전 계획이 있다
- ☐ 외부 인력을 관리·조율할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

Buy (채용)

- ☐ 이 역량은 상시적으로, 반복해서 필요하다
- ☐ 시장에 이 역량을 갖춘 인력 풀이 존재한다
- ☐ 채용 예산과 온보딩 체계가 준비되어 있다
- ☐ 이 역할의 성과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

Bot (AI·자동화)

- ☐ 업무가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이다
- ☐ 입력·출력 데이터의 형식이 비교적 일정하다
- ☐ 결과물을 검토·승인할 사람과 절차가 정해져 있다
- ☐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대응 절차가 명확하다

최종 판단

체크된 항목이 가장 많은 방식을 1순위로, 두 번째로 많은 방식을 보완책으로 조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어느 항목도 체크되지 않는다면, Capability 정의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『일은 누가 하는가』 — Judgment Architecture Lab · judgmentarchitecturelab.com